

양수경 '콘서트7080' 70분 단독출연

신중현·이승철 이어 여성으로서는 유일



17년 만에 컴백한 가수 양수경이 KBS 1TV '콘서트 7080'에서 70분간 단독 무대를 꾸민다. 소속사 오스카이엔티는 2일 "양수경씨가 오는 9일 '콘서트 7080' 녹화에 단독으로 출연한다"며 "이 녹화분은 8월 말 방송된다"고 밝혔다. 매회 3~5명의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 7080'에 한 명의 가수가 무대에 서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단독으로 출연한 가수는 신중현과 이승철이 유일하고, 여성으로서는 양수경이 처음이라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양수경은 이날 새앨범 타이틀곡 '사랑 바보'와 리메이크곡 '갈무리', 자신의 대표곡 '사랑은 차가운 유혹'과 '바라볼 수 없는 그대' 등 11곡을 부를 예정이다. 이 무대를 위해 전국을 편곡했으며 23인조 밴드와 협연한다. 또 그의 컴백을 축하하기 위해 전영록과 김범룡이 특별 출연,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양수경씨가 KBS 2TV '불후의 명곡'을 통해 19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무대를 그리워했다"며 "이번 공연을 위해 하광석 프로듀서와 노래, 무대, 의상 등을 일일이 체크하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드 괴담'에 바짝 긴장한 한류

중국 콘서트 취소·한류 스타 출연분 삭제 등 루머 떠돌아

일부 계약 잠정 보류·중단 등 긴장 속 중국 움직임 예의주시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과 관련해 한류 콘텐츠에 보복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어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진출한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류 스타들의 출연분이 삭제됐거나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가 취소됐다는 등 '사드 보복 사례' 루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같은 루머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실제 없는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 국가신문출판관청총국(광전총국)이 국제적 요인을 이유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을 규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난 1일 현지에서 흘러나오기도 해 연예계는 긴장 속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 콘서트나 촬영 취소 루머 모두 거짓

7월 마지막 주부터 연예계에는 김희철, 유인나, 엑소, 빅뱅, 헨리 등이 사드의 불뚱을 맞았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이들이 출연한 드라마의 녹화분이 편집됐거나 촬영이 취소됐고,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이 미뤄졌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퍼지고 있다.

또 이번 달 중국에서 열기로 한 콘서트가 취소됐고, 추진 중이던 출연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소문까지 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희철, 엑소 등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중국에 진출한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에 변동이 전혀 없다"며 "모두 사실이 아닌 루머"라고 확인했다. 특히 엑소는 애초 8월 중국 공연 스케줄이 없었고, 9월 태국을 시작으로 해외 투어에 나선다.

유인나, 빅뱅 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중국에서 촬영을 잘 진행하고 있고 분위기도 이상한 게 없다"고 밝혔다. 빅뱅도 향후 마카오와 대만 공연은 있지만 중국 본토 공연은 잡혀있지 않다.

◇ "중국 정부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소문은 흉흉"

연예계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광전총국으로부터 중국 방송가 등에 공식적으로 지시가 하달된 것은 아직 없지만,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배우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의 장영훈 대표는 "이런 저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 실체는 없지만 중국 활동을 해야 하는 스타들은 현지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호가 주연한 한·중 합작영화 '바운티 헌터스'는 지난달 1일 중국에서 개봉해 첫날 90여만을 벌어들이는 등 흥행했다.

중국 전문 에이전시 아이엔컴퍼니 배경렬 대표는 "지창욱, 이다해 등이 출연하거나 촬영 중인 현지 드라마 모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진 중인 일들이 중단, 보류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지창욱

이민호

빅뱅

엑소

유인나

김희철

이민호

빅뱅

엑소

유인나

김희철

중국 전문 에이전시 아이엔컴퍼니 배경렬 대표는 "지창욱, 이다해 등이 출연하거나 촬영 중인 현지 드라마 모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진 중인 일들이 중단, 보류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배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진행하던 계약이 잠정 보류되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나온 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는데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강수정, 5년 만에 MBN '사이다'로 복귀

코미디 입담 대결 펼치는 청백전으로 5일 녹화

강수정(39) 전 KBS 아나운서가 5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MBN은 2일 "강수정 전 아나운서가 9월 첫 방송 되는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청백전-사이다'를 진행한다"면서 "이달 5일 프로그램 첫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아나운서는 2002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시사, 예능 프로그램을 오가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06년 퇴사 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변신한 그는 2011년 1월 종영한 케이블채널 스토리온의 '뷰티 위' 이후 방송 활동을 쉬었다.

'사이다'는 10명의 개그맨이 5대 5로 팀을

짜 입담 대결을 펼치는 프로다. 1980~90년대 방송계를 주름잡았던 선배 개

그맨들이 청팀으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후배들은 백팀으로 마주한다. /연합뉴스



'사이다'는 10명의 개그맨이 5대 5로 팀을 짜 입담 대결을 펼치는 프로다. 1980~90년대 방송계를 주름잡았던 선배 개그맨들이 청팀으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후배들은 백팀으로 마주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ura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EBS1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Duration,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일(음 7월 1일 丁巳)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Prediction. Provides daily fortune predictions for each zodiac sign.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